

요한 1 서 묵상 13
(9/3/2020, 목)

찬양: 452(505)(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3:4-12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유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 4 절 -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아노미아’인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율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죄**’라는 말의 원어인 ‘**하마르티아**’의 문자적인 의미는 ‘**과녁에서 빗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과녁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거스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죄의 개념과 불법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표현, 다시 말해서, “**죄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 구절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함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죄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히 말세에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상태로서의 수많은 “**불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6 절 -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하지 아니하나니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5 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절 -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지만,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는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살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용서의 문을 열어 놓으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구원받으면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더욱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애쓰는 자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7 절 -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죄를 멀리하는 성도의 특징은 미혹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각성해 있는 성도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은 멀리서도 오지만 가까이에서도 올 것이고, 나의 바깥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서 미혹이 일어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 명제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라. 요한은 아울러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7 절)라고 말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 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자. 요한은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8 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9 절)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지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속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으므로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 절의 말씀 역시 성도는 믿은 후에 아예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거리가 먼 삶,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도는 그 만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성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의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10 절 -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10 절에서 의와 사랑을 함께 언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절에서 한번 더 사랑을 강조합니다. **11 절 -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참된 믿음의 사랑은 하나님의 씨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며 의로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온전히 바라고 붙잡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혼돈 속에서 신음하는 조국과 한반도가 주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 갱신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 (시 19:14).